

한 72세 ‘밀접 접촉자’의 신기한 경험

[명후이왕] 8월 11일 명후이왕에 실린 ‘왜 이런 밀접 접촉자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문장에서 여러명 ‘밀접 접촉자’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은 신기한 경력들은 모두 사실이다. 나도 그런 ‘밀접 접촉자’였으나 무사했기 때문이다.



저의 이름은 중수란 (仲淑兰) 이고 올해 72세로 산둥 고미현 사람으로서 현재 해외에서 생활합니다. 파룬궁을 수련한후 신체는 아주 건강합니다. 2년간 무한 폐렴이 전 세계에서 창궐했지만 나는 수련인은 사존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전염병이 몸에 오르지 못한다는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출장 간호인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6일, 회사에서 저에게 “한 환자가 감염됐는데, 병간호하러 갈 수 있어요? 하루 아홉 시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 괜찮아요”라고 하여 “주 5일 근무”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즉시 환자 집에 출근했습니다. 70여세 환자는 병원에서 막 집에 돌아왔는데, 할아버

지는 기침할 때 벌은 가래가 분홍색을 띠며 두통과 식욕부진이 있었으며 또 중풍과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매주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했고 왼쪽 팔과 하체를 모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할아버지를 두 번씩 닦아주면서 목욕과 식사를 도우며 세수와 양치질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목욕을 하고 변을 볼 때는 할아버지를 안아서 구멍이 뚫린 의자에 앉혀야 했습니다. 매일 할아버지와 가까이 접촉하면서 저는 전염병 발생 상황이 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걱정돼서 매일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문제 없을 거

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파룬궁 (法輪功) 진상을 알렸고 중요한 부분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썬싼런하오 (真善忍好)’를 넘하자 셋째 날부터 기침과 구토를 하지 않았으며 두통도 눈에 띄게 경감됐고 식욕도 매우 좋아져 사람이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7일이 되는날 그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10일째 날은 일체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제 보기엔 환자가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썬싼런하오 (真善忍好)’를 넘해 아주 빨리 혜택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밀접 접촉자는 80대 정도 된 할머니였는데 마르고 키가 컸습니다. 4월 26일, 회사에서 또 제게 전화를 걸어와 “확진자인데 할머니예요. 그분을 병간호해주시면 안 될까요? 24시간 내내 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말하고 즉시 환자 집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도 막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이 있었고 침대에 누워서 지냈는데 24시간 우리 둘이 그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의사여서 매일 와서 두 차례 약을 자시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매일 전화로 제게 무슨 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저는 못 알아들었고 제가 한 말을 그 두 사람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에게 ‘보도(普度)’, ‘제세(濟世)’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충분히 듣지 못했는지 제가 중단하기만 하면 소리를 질렀고, 저는 계속 듣도록 틀어주었습니다. 제가 간 후, 할머니는 두통이 나왔고 기침도 경감됐으며 식사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7 일째 되던 날, 할머니의 아들이 할

머니를 데리고 검사받았는데 저와 함께 갔습니다. 결국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제게 통화로 “저의 시어머니가 당신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통할 방법이 없을 뿐이에요. 조금도 못 알아들었어.”라고 말하자 그녀는 “여사님 전화번호를 제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물었고 저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니다.

저는 병간호했던 이 두 환자와 모두 완전히 ‘밀접 접촉’을 했는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환자들도 혜택을 받아 병이 나았습니다. 환자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真善忍好)’를 넘하고, 마음을 안정하고 ‘보도(普度)’ 등 음악을 들어 순정한 에네지의 가치를 받아 병독은 신속히 소멸되었으니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의 미소에 눈물 흘린 독일 기자

[밍후이왕]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베티나 고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독일 프리랜서 기자다. 고졸라는 10월 29일 마리엔 광장을 지나다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이라고도 함) 수련생들의 행사를 보고 감동해, 대행진을 끝까지 따라갔으며, 파룬궁 반박해를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후 인터뷰했다.

고졸라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행사가 너무 좋았습니다”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련자들의 미소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은 사람을 신앙이 있는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의 선량한 본성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공은 22년 동안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계속 박해해 왔다. 그는 중공의 이런 박해가 매우 끔찍하다며 “특히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정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중공이 공산주의와 비인도적인 행동을 발전시켜 다른 나라로 퍼뜨렸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 수련생들은 독일 뮌헨 마리엔 광장에서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폭로했다.

◀ 파룬궁 수련생들의 미소에 눈물 흘린 독일 기자

박해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고졸라는 “나는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나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장기적출 중단 청원서에) 서명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파룬따파가 정신 명상 수련이라고 생각한다면 “파룬궁 수련자들이 앞장서서 장기밀매를 포함한 극도로 비인간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장기밀매 중단, 중공해체’를 촉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고졸라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서면 전 세계적인 자유 운동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만나서 서로 협조하면, 올바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족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해 악보받은 사례

[밍후이왕] 1999년 7월 20일, 중공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에 대한 참혹한 박해를 시작한 후 수많은 중국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도 박해를 받았다. 불법 납치, 감금, 그중 한을 품고 사망한 수련생(직접 박해로 사망한 수련생 포함) 수는 적어도 40여 명이 된다. 중공의 금전과 소위 관직의 승천에 유혹돼 파룬궁박해에 가담한 자들은 결국 악보를 받았다. 아래에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해 업보받은 5개 사례다.

■ 도문시 조직부 부부장 뤼샤오리(罗晓利)는 세뇌반을 설립해 연변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후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사망하다

뤼샤오리는 석현 종이공장 당위 판공실 주임직을 임했을 때 가장 먼저 공장 사당위, '610' 지령에 따라 종이공장 양로원에서 세뇌반을 설립해 본단위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그의 행위는 성, 주'610'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델로 삼아 전성에 선전했다. 2001년, 도문시 김영남과 수십명 연변 파룬궁수련생들이 석현 종이공장 양로원 세뇌반에 납치돼 비인도적인 세뇌박해를 받았다. 그러자 얼마안돼 뤼샤오리의 아내는 불시에 신괴사(腎坏死) 확진을 받아 북경병원에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으면서 2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다.

■ 료녕성위 통전부 부부장, 원푸순시위서기 가오홍빈이(高宏彬) 엄청난 위법 혐의로 기소 받다

가오홍빈은 2012년 초 번시(本溪) 시장으로 임직된 후 2016년 6월에 푸순(抚顺) 시위서기로 됐다. 2년 후 성위 통전부에

전근했으나 3달 후 낙마돼 규율심사와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1년 후 2019년 12월 16일, 고홍빈은 "쌍개(双开)" 되고 검찰기관에 의해 심사받고, 기소당했다.

가오홍빈이 번시 시위서기직을 임할 때 번시 파룬궁수련생들은 비교적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푸순시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김순녀는 푸순시 국영 8231 공

장 퇴직 공인이다. 2002년 11월 불법 징역형 13년을 선고받고 2003년 4월 8일에 료녕성 여자감옥에 감금돼 13년간 비인도적인 참혹한 박해를 받았다.

2018년 9월 19일, 김순녀는 푸순시 순청구 신화가도 순다사회구역에 증명서류를 떼러 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이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도 모두 소식을 몰랐다. 10월 6일, 경찰은 가족에게 전화로 김순녀가 푸순시 중심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가족이 병원에 갔을 때 김순녀는 이미 혼미상태에 처해 있었다. 경찰은 가족에게 서명하라고 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중하게 판결하고, 서명하면 집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김순녀의 딸은 혼미상태에 숨이 겨우 붙어있는 모친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 서명했다. 경찰이 떠난 후 그의 남편과 딸이 4일간 함께 지켰으나 김순녀는 줄곧 깨어나지 못하고 2018년



▲ 런던 라벨리빌딩 옥상에 세운 정의의 여신 조각상

10월 10일 오전 4시 4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날로 시신은 강제로 화장됐다.

■ 목단강감옥 악경 주자이량(朱再良) 악보받아 가족에게 피해 끼치다

흑룡강성 목단강감옥 악경 주자이량은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김유봉(金宥峰)을 달아매 구타하고, 범인을 시켜 폭행을 실시한 후 얼마안돼 그의 유일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상한 것은 당시 함께 승차했던 기타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김유봉은 전 목단강사범학원 체육계 강사로 40세 좌우다. 2003년 불법 징역형 13년의 선고를 받고 목단강감옥에 감금돼 박해받았다. 목단강감옥에서 김유봉은 작은방에 갇혀 박해 받았는데 4면이 봉쇄된 작은공간에서 단지 작은문에 달린 사발크기만한 공기통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시멘트 바닥에는 이불과 깔개도 없어 뼈속까지 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경은 그들(4면에 계속)

(3면의 계속)에게 38근이 되는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또 철련으로 함께 연결시켜 강제로 15일간 고정해 놓았다. 김유봉은 박해받아 신체가 몹시 허약해진다 감옥의 악렬한 환경, 강도가 높은 노역로동,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고문 구타를 받은결과 불행하게도 폐결핵에 감염돼 생명이 위독해 졌다. 그러나 감옥측은 그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석방하지 않았다. 후에 가족들의 강렬한 요구와 견지하에 감옥측은 2008년 단오절 전야에 겨우 보석치료 수속을 하게했다. 2009년 1월 21일, 44세인 김유봉은 구급치료중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룡정 동성용진 룡산소학교 교장 조철고는 악보받아 아들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다

조철고가 파룬궁수련생 김덕수를 철직시킨후 그의 아들은 해란강에서 물고기를 잡을때 돌에맞아 사망했다. 조철고 본인도 따라서 갑자기 학교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기숙사는 막대한 손실을 받았고 결국 책임을 떠밀어내지 못해 학교측의 철직을 받고 학교를 떠났다.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김덕수 남, 40여세, 룡정 동성용진 룡산소학교 교사였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해 2002년 교장 조철고에 의해 철직당하면서 이혼까지 당했다. 2007년 9월 29일, 김덕수는 일하는 곳에서 2명의 사복경찰에 의해 강박으로 납치됐다. 그후 1년 6개월 노동교양 처분을 받고 길림성 쥬우타이인마허(九台饮马河) 노동교양소에서 박해 받았다. 노교소에서 김덕수는 장기간 딱딱하고 차디찬 목나무 위에서, 머리, 경부, 허리를 곳곳이 펴고 양손은 무릎위에 올리고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즉시 욕설과 폭행을

받았고, 얘기를 나누지 못하게 했다.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침대위에 앉아야 했는데 하루세끼를 침대위에서 먹어야 했으며 한끼에는 작은 만두 2개와 반점시 국물 뿐이었다. 7개월후 김덕수는 박해받아 생명이 위독했다. 노교소측은 책임을 떠밀기 위해 김덕수를 의사의 호송하에 룡정으로 돌려보냈다. 후에 두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08년 12월 31일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도문시 감수소 부소장 최송철부부는 교통사고로 새끼망게 타죽다

2009년 1월 30일, 도문시 감수소 부소장 최송철은 파룬궁을 박해해 업보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40대 최송철과 아내가 차를 몰고 샤가촌(下嘎村)에 이르렀을때 고속도로 안전란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차바퀴는 하늘을 향한채 차문은 끽끔 잠겨져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부부는 힘껏 비명을 질렀고, 촌민과 택시차 기사들이 모여와 문을 내리칠때 갑자기 차에서 불이 일어나 사면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냥 부부가 불에 타서 재덩이가 되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최송철(崔松哲, 남, 조선족, 40대)은 일찍이 구치소의 회계사와 교도원 그리고 부소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2001년 9월 불법적으로 수감된 젊은 여자 파룬궁수련생 2명이 대법경문(大法经文)을 따라서 적는 것을 발견하고 수갑을 채워 매달아 놓았다. 한 60세 파룬궁수련생이 고문을 정지하라고 하자 그는 또 잔혹하게 환갑나이인 그를 허공으로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악독하게 말했다. “3박 3일을 달아매고, 화장실 금지, 음식, 물 금지 할 것이니 너의 선생님이 너를 구하기를 기다려봐.” 그리고는 술마시러 떠났다. 이번에 허공에서 18~19시간동안 매달아 놓았는

데 한방에 감금된 십여명 형사범들도 참아 볼 수 없어 조용히 발밑에 베개를 받쳐줬다. 그렇게 해도 매달린 사람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고, 그중 연장자가 1시간 넘게 혼절했다. 그래서야 검찰원 구치소 주재 검찰관이 구원소리를 듣고 매달린 사람을 내려놓았다.

얼마안돼 술을 잔뜩 마신 최송철이 감수소로 돌아와 보고나서 독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려 놓았다면서 3명을 또 1시간 넘게 달아 놓았다. 오랜시간 매달림 박해를 받아 피해자의 두 손목에 생긴 깊은상처는 약 한 달이 돼서야 회복했다.

이번 사건을 피해자 가족이 알게된후 가족은 최송철에게 책임을 물었다. 최송철은 처음에는 몇몇마디 피탈을 댔으나 후에 가족이 법률로 도리를 따지고 또 한급한급씩 상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두려워졌다. 최송철은 관직을 보전해야 돈을 많이 얻기에 연이어 가족에게 점고 무식했으니 상소하지 말라고 구했다. 가족들은 그가 뉘우치려는줄 알고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그의 박해 수법은 더욱 은폐되고 지독했다. 2006년 최송철은 또 불법감금되어 단식으로 반박해를 하고 있는 조선족 파룬궁수련생을 위협하며 말했다. “계속 단식하면 래일 아주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튿날 진짜 한사람이 가만히 일종의 흰색 가루를 주입물에 쏟아 넣었다. 그때 주입관을 빼내자 수련생은 온몸이 나른해졌고 다행하게도 불시에 메스꺼려 전부 토해버렸다(수련생은 사부님의 보호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수련생은 괴상하게 무력감을 느꼈다.

나쁜 짓을 한 최송철은 업보를 당해 죽었고 그의 죄악이 아내에게까지 미치게돼 아이마저 고아로 만들었다.

최령 : 딸에게 물려준 가장 큰 정신적 자산

[밍후이왕]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최령(崔玲)은 2004년에 파룬궁에 관한 진상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고문구타를 받았다. 그때 딸은 4살밖에 안되었는데 엄마로서 “저는 양심을 버리고 거짓 말을 할 수 없으며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딸에게 남겨질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공의 최령에 대한 박해는 그녀의 가족과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최령은 말했다.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가 매번 물었다고 저의 어머니가 알려줬어요. ‘엄마는 왜 들어오지 않아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최령 어머니의 마음은 칼에 베인 것처럼 아팠다. 노인은 중공의 반복되는 살인과 정치 운동을 직접 보았고,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중공의 무자비한 박해에 몸서리를 쳤으며, 항상 딸의 생명 안전에 대해 걱정했다.

최령의 어머니는 최령이 감옥에 갔을 때 딸을 만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딸의 맑은 얼굴이 검푸르고 몸이 매우 허약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를 가진 마음으로 감옥 소장과 관리실에 편지를 썼다. 그녀는 수차례 성급 ‘문명감옥’으로 평가받던 산둥 여자감옥이 어째서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옥해도 대꾸하지 않는 수련인에게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을 사실로 믿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문책하고 이것은 명백한 ‘감옥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악에 맞서 최령은 이미 생사를 도외시했다. 산둥 여자감옥 경찰은 수감자들에게 구타, 욕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잔혹한 고압적 방법으로 그녀를 박해하라고 지시했다.

“저는 단식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극도로 쇠약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걸 보시고 그리 자존심이 강하던 어머니가 난생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소장에게 보석 치료를 요청했지만 ‘전향’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더라도 보석 치료는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집에 가서 어린 손녀 위자(雨佳)에게 “엄마는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했다.

밍후이왕 뉴스의 “청도 국가 보안과 공안이 결탁하여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다”에 따르면: “최령은 1973년생 여성이다. 청도 남구 신가장단지에 살고 있고 2005년에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딸은 겨우 서너 살이었다. 그녀는 4개월 넘게 다산 제 2 간수소에서 불법 구금 중 계속 단식 항의를 했고 간수소의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사악한 경찰이 한자의 콧속에 음식물을 집어넣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수감자 5~6명에게 시켜 추이링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하고 주입한 음식물에 호르몬제를 섞어놓았다. 호르몬제 영향으로 단식 항의가 4개월이 지나도 그녀는 외형적으로 말라 보이지 않았다. 장기간의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으로 인해 그녀는 코가 부어오르고 고무관을 꺼낼 때마다 피투성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난(濟南) 산둥여자감옥에 보내져 계속 박해를 받았다.

“지난감옥 훈련소에서 최령은 더욱 잔인한 박해를 받았고 여러 번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

다. 병원에 갈 때마다 경찰들은 최령의 입을 막고 그녀를 땅에 질질 끌어 발과 다리에 많은 상처를 입히게 했다. 사악한 경찰 쉐옌친(薛彦勤)은 잔인하게 음식물을 주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확대해서 인쇄했고 나눠서 열람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코에 고무관을 삽입하는 장면). 이 자의 인간성이 없는 변태적인 심리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가끔 하루에 세 번씩 구타를 당한 최령이 가족과 만날 때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만 쉐(薛)는 오히려 감방 수감자끼리 서로 싸웠다고 변명해 파룬궁 수련자들의 가족을 속였다. 집에 가기 한 달 전에 최령은 또 외부감독 구역에서 훈련소로 다시 이송해 강제 ‘전향’을 당했다. 경찰은 방에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그녀를 구타하게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6면에 계속)



▲ 2018년 토론토에서 추이링은 딸 위자(雨佳)와 함께 선원(SHEN YUN, 神韻)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파룬따파 (法輪大法) 는 중생을 더 행복하게 한다

[명후이왕] 나는 중생이 파룬따파가 좋다고 믿었기에 복을 받은 사실을 글로 써서, 자신과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된 중생이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표하려 한다!

소방관 “여러 해 불을 꺾어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

네 (聶) 씨 아저씨는 우리 어머니 동료의 남편이다. 중국공산당 (중공) 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부터 아저씨는 줄곧 “파룬궁을 박해해선 안 되지”라고 말했다.

아저씨네 집은 대들보가 서로 연결된 단층으로 도로변에서 두 번째 집이었다. 어느 날 도로변 첫 번째 집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이 불을 다 끄고 아저씨에게 “저는 여러 해 동안 불을 꺾는데,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들보가 연결된 집인데 이 집은 불타서 다 내려앉았지만, 당신네 집에 오자마자 이 불이 일제히 끊어져 그을린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라고 말했다. 소방대원들은 저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대법 (파룬따파) 이 천지를 뒤덮듯이 몰아붙이는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네 씨 아저씨가 보여준 ‘파룬궁을 박해해선 안 되지’라는 이 정의로운 일념에 신불 (神佛) 께서 보호해주시며 아저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이다.

20년간 매일 손님으로 가득 찬 식당

내게 가까운 대법제자 친척 한 명이 있다. 그는 한 식당 주인 내외와 좋은 친구였다.



20년 전 이 식당은 평범하게 운영됐다.

한번은 친척이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전달해 경찰의 주의를 끌었고, 경찰은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때는 중공이 파룬궁을 가장 광적으로 박해하던 시기였다. 식당을 경영하는 그 친구 부부는 내 친척을 자신들 집에 숨겨주었고, 저녁에 자형에게 자동차로 내 친척을 다른 도시로 보내주라고 부탁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식당의 장사가 나날이 잘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뜻밖에도 매일 손님으로 가득 찼다. 이 식당의 위치는 매우 평범했고, 주변의 다른 작은 식당들도 모두 그리 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유일하게 이 식당만 지금까지 20년을 거의 매일 손님으로 가득 찼다. 이런 상황은 이 작은 현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그 식당 주인은 이제 요리사업무를 그만두고 따로 요리사를 구해 자신은 즐겁고 출가분하게 지낸다. 식당 이름 중 한 글자가 바로 내 친척 이름 글자 중 하나였다. 옛사람들은 승려에게 밥 한 끼를 주면 무한한 공덕을 쌓는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 내외는 어려움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대법제자를 보호했으므로 쌓인 복은 더욱 컸다.

(5면의 계속)

아이에게 남겨질 가장 큰 정신적 자산

감옥 경찰의 다양한 전술에도 최령은 ‘전향’하지 않자 그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스스로 신이 되고 부처가 되려고 가족과 자식을 다 버립니까?” 최령은 말했다. “우리 가족이 헤어지고 제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불법 (佛法) 에 대한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허용되며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진선인 (真·善·忍)’ 에 대한 신앙까지 유죄이고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사회면 이런 사회에 진실과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 아이들과 수천만의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얻기 위해 엄마로서 저는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제 딸에게 남겨질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이후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큰 용기와 도덕적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령의 가정은 결국 모였다. 그녀는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진선인에 대한 대법제자의 신념과 진리를 전하는 용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을 보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성장한 후 당시 제 경험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공으로부터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딸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딸도 파룬궁 수련에 뛰어들어 청년 대법제자가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점점 대법제자를 이해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중공의 박해는 완전히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